

재일한인의 생활사 이야기와 서사문학*

이 헌 홍**

차 례

- | | |
|--------------------------|-------------------------------|
| I. 글머리 | IV. 재일 한인 생활사이야기의 서사문학적
형상 |
| II. 연구 대상 자료의 수집, 채록과 검토 | V. 마무리 |
| III. 재일 한인 생활사이야기의 주요 내용 | |

I. 글머리

생활사이야기는 경험담과 대동소이하다. 양자 모두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생성된 이야기이면서도 전자가 시간성을 중시하는 지속적 개념의 이야기임에 반해, 후자는 공간성 내지는 개별적 경험 단위에 보다 비중을 둔 경우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담과 생활사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까닭은 이들을 통해 개인의 특이한 체험에 대한 현재적 시점의 의미 부여는 물론 그 개인과 함께 한 생활집단 내지는 문화집단의 고뇌와 환희, 의식과 세계관 등을 두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5-A00007)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루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궁핍과 절망의 현실, 발붙일 곳 없는 땅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거나 쫓겨나야만 했던 해외동포들과 그들의 후손이 이역에서 겪는 삶의 이야기들은 그 모두가 생활사이야기나 경험담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땅을 떠나기까지의 험벗고 굶주린 삶, 징용 징병으로 강제 동원된 경우 등이 바로 쫓겨나고 끌려간 사연들이다. 미지와 공포의 낯선 땅에 이르는 과정,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일상, 구박과 천대, 전장의 노역이나 총알받이, 죽음을 무릅쓴 탈출 시도, 체포 처형으로 삶을 마감하는가 하면, 차별을 딛고 천신만고 끝에 안정을 찾아가 했더니 또 다시 수탈과 탄압에 시달리는 삶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처럼 조국을 떠나 타향에서 시달리는 우리 동포들의 삶의 궤적 그 모두가 바로 뚜렷하고도 의미 있는 생활사이야기들이다.

중국 조선족, 재일 한인, 제러 한인들의 대부분은 우리 땅에서의 생존 기반 박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함으로써 생겨난 역사적 비극의 당사자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그 절대 다수가 그러하다. 두려움과 공포의 낯선 땅에서 중노동과 기근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고난의 하루하루를 딛고 영욕을 일궈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앞으로 우리들 삶의 지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나라 잃은 시기를 전후한 우리 동포들의 국외 이주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자의적인 경우도 극소수 있지만, 기근으로부터 벗어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탈출이거나 강제 이주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일본으로의 이주는 후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군위안부로 끌려가서 희생된 사람들이나 원폭 피해자의 이야기는 차마 듣고 보지 못할 참상이기에 그들의 원

1) 생활사이야기 내지는 경험담의 텍스트적 의미에 대해서는 유철인, 『생애사와 신세대령』, 『한국문화인류학』 제22집(한국문화인류학회, 1990), 윤택립, 『기억에서 역사로』,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집(한국구비문화학회, 1997), 천혜숙, 『여성생애담의 구술 사례와 그 의미 분석』, 『구비문학연구』 제4집(한국구비문화학회, 1997), 김현주, 『일상경험담과 민담의 구술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집(한국구비문화학회, 1997) 등 참조.

혼 앞에 우리는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간행된 제일 한인 생활사이야기의 문헌 자료,²⁾ 필자가 직접 조사한 설문 자료,³⁾ 면접 채록한 자료,⁴⁾ 비디오 테이프 녹화된 자료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 및 관심사가 서사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된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연구 대상 자료의 수집, 채록과 검토

가) 문헌 자료

(가) 前田憲二의, 『百萬人の身世打鈴 -朝鮮人 強制連行・強制労働の恨』 (東方出版, 1999)

이 책은 7, 8명의 취재진이 1993년부터 7년 간에 걸쳐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직접 동원되었던 희생자들을 찾아 일본과 한국의 각지를 두루 뒤흔다. 100여 명의 제보자들을 확보하고 그들로부터 증언을 채집하여 그것을 문자로 옮긴 방대한 자료집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의욕과 노력은 대단하며 그 결과 또한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의 증거들을 밝혀낸 소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역사 서술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을 현실의 전면으로 부각시켜 그 생생한 현장을 재현하는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 2) 문헌 자료는 매우 많은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만인의 신세타령』, 『방랑전』, 『제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과정』, 『이카이노 이야기』, 『나의 이카이노』, 『국경을 넘은 사람들』, 『일본에서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내용 및 서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목록이나 해당 항목에서 밝힐 것이다.
- 3) 공동 연구원들이 함께 설문 조사를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생활사에 관련된 설문은 7항목이다. 설문의 내용과 응답은 뒤에서 보일 것이다.
- 4) 2002년 1월과 2003년 1월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서 10여 명의 제보자를 만나 직접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록한 것인데, 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상회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할 때에 부록 자료로 묶을 예정이다.

책의 짜임을 보면, ①식민 통치에 유린된 조선의 피해상, ②제일 조선인의 비참한 삶의 모습 ③우리들은 지옥을 보았다-태평양전쟁하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④왜 우리들은 소송을 제기하는가? -일본의 전후 책임을 묻는다-라는 대 항목을 두고 각 항목의 내용에 부합되는 도합 100여 편의 증언을 적절히 안배하여 채집·수록하고 있다.⁵⁾

책의 내용은 주로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을 당한 제일 1세대들의 한 많은 일생을 술회한 것이다. 생활사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묻혀져 버리기 쉬운 피해자의 사연이므로 이 자료는 구술자의 입담이나 구성 능력 등의 텍스트 생성적 의미보다는 망실되기 직전의 기억을 되살린 채집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 수록된 생활사이야기의 구체적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요 내용을 살피는 항목 및 생활사이야기의 서사문학적 형상과 의미를 추론하는 항목에서 필요에 따라 언급할 것이다.

(나) 金文善, 『放浪傳』(彩流社, 1991)

이 책은 문자 그대로 떠돌이적 삶의 역정을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자전적 작품이면서도 그 내용이 형상적 구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과거의 체험이 구술⁶⁾의 시점에서 재구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겪은 인생 향로는 험난하기 그지없다. 그의 기구한 인생 역정에 못지않게 이야기의 서술 또한 매우 치밀하고 구상적이다. 책의 체계를 보면, 1) 고국을 떠나 오사카에, 2) 아버지와의 이별, 3) 태평양전쟁 전후, 4) 방랑 끝에 산야 지방에, 5) 지문날인 거부 등의 5항목으로 나눈 후에,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험적 사건들을 5~15개 정도로 적절히 안배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성격이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5) 이하, 일본어로 된 문헌의 번역과 인용은 그 양이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자료명과 해당 항목만을 본문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6) 이 책의 후기에는 저자의 생애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문자화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작문 능력이 서툴렀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책은 저자의 구술과 보조자의 서술이 어우러진 협동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 金文善, 『バクのイヤギ』(新幹社, 1992)

이 책은 어린이와 같은 시선으로 살펴본 제일 한인으로서의 경험담이다. (나)의 책과 동일한 저자의 저술이므로 여기서는 책명만 밝힌다.

(라) 高鮮徽, 『在日濟州道出身者の生活過程』(新幹社, 1996)

이 책은 크게 I부와 II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부는 일본의 關東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 출신자들에 대한 앙케트 및 면접조사 보고서이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제주도의 지리 역사적 배경·생활공동체적 특성·혼인형태와 여성의 지위·친목회 등에 대한 일반적 검토가 있다. 특히 서론에서는 1988년 말 현재 제일 조선·한국인 677,140명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는 117,687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며, 당시 제주도 인구의 22.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 인구가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1.18%)에 비취 볼 때, 제일 한인 속에서 제주도 출신자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II부에서는 19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면접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채롭고 풍부한 편이다. 이들 이야기의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제주도 여성의 억척스러운 생활력, 4·3사건과 그로 인한 이국에서의 떠돌이 신세, '키미가요마루'를 타고 와서 선박 관련 사업으로 성공한 이야기, 방직공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는 남편 대신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여인의 한많은 고생 이야기, 분단 조국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남과 북을 방황하는 이야기, 세계 최초로 바퀴 달린 가방을 발명 제조한 사업가 이야기 등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마) 衫原達, 『越境する民』(新幹社, 1998)

오사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통해 세계사를 조망한다는 의욕에서 출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의 후기를 보면 이러한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오사카 거주 朝鮮人史의 특징 ②在阪 조선인의 도향 과정 ③오오사카 제주도 향로의 개설과 전개 ④在阪 조선인의 정착과정 ⑤조선인을 둘러싼 근

7) 高鮮徽, 『在日 濟州道 出身者の 生活過程』(新幹社, 1996), 9쪽 참조.

대도시 오오사카의 언설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 『在日光山金氏親族會 創立三十五周年記念誌』(在日本光山金氏親族會, 1989)

일본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 광산 김씨 친족들의 모임 35주년을 기념하여 간행한 책이다.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오사카 지역 거주자들이다. 이 모임에서는 이역 만리 타향에서 조상의 제사, 장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동향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상부 상조의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在日光山金氏 專用靈苑’의 설치와 이를 수호 관리하면서 매년 1회의 합동 위령제를 지내는 일이다.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양력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세시풍속 등의 전통 행사도 모두 양력으로 그 날짜를 바꾸어 시행하고 있음에 반해, 이들은 음력 8월 15일 직전의 일요일을 택하여 합동 위령제를 올린다. 전통 명절을 음력으로 고수하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다.⁸⁾ 동향 친족 집단의 이 행사에는 남녀 모두가 함께 참석하여 우리 고유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 제사를 모시는데, 이 행사는 1973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다.

(사) 金容海, 『本名は民族の誇り』(碧川書房, 1996)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 사용의 당위성과 긍지를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동 주창자의 저서이다. 필자는 오사카시 소재 기타츠루하시 소학교의 민족학급 담당 교사로서 30여년 동안을 근무하다 정년 퇴임한 분인데, 여기에는 필자의 현장 경험, 각종 강연회, 민족교육 관련 법령 등의 자료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아) 정환기, 한운사 역, 『재일을 산다 - 정환기 自己史』(교학사, 1988)

재일 동포 실업가인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집이다. 자신의 지난날을 시대별로 나누어 서술하고, 사업가로서 아이치현에 남긴 일, 재일동포를 위한 각종의 단체를 설립하여 민족교육 50시간 의무제를 시행하는 등 한일 친선사업에도 상당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데군데에 보이는 개인의 단상을 통해 재일 한인들

8) 다른 명절은 몰라도 추석은 보름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의 역량과 한계를 살필 수 있음은 물론 국내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자) 하종근 역, 『日帝植民官僚가 분석한 朝鮮人』(세종출판사, 1995)

조선총독부에서 대외비 조사자료 제20집으로 작성한 보고서인데, 원제는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다.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인의 성격, 사회적 경향, 신앙, 문화, 문예,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두루 담고 있다. 그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통치전략을 위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참고가 된다.

(차) 노무라 스스무, 강혜정·정동선 옮김, 『일본인이 두려워한 독한 조선정 이야기』(일요신문사, 1999)

이 책은 자기 역량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일본인도 쉽게 이룰 수 없는 고지를 점령한 제일 조선인의 삶을 취재한 논픽션 보고서이다. 제일 동포 중에서 파친코왕, 가수왕, 야구왕 등으로 이름을 떨친 분들은 물론, 베트남과 미국의 한인들에게도 시선을 돌리면서, 이를 통해 일본 속의 소위 코리안 마이너리티의 역량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다.

(카) 오자와 유사쿠, 이충호 옮김, 『제일 조선인 교육의 역사』(혜안, 1999)

일제시대는 물론 광복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동화주의적 제일 조선인 교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는 역저이다. 동화정책 위주의 제일 조선인 교육의 실상을 밝히기 위하여 제일 조선인의 삶의 전반을 두루 조명하는 효과를 아울러 거두고 있다.

나) 현지 인터뷰 자료

일본 현지의 인터뷰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002년 1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필자가 직접 인터뷰한 자료이다. 제보자 중에서 두 분은 일제 강점

기에 도일한 교육자이다. 한 분은 조총련계의 민족학교에서 민족교육에 평생을 바친 후에 정년 퇴임한 송○○님이고, 다른 한 분은 김○○님이다. 송○○님은 조총련계의 민족학교 교원에서부터 교장을 역임하고 정년 퇴임하였는데, 우리 민족 우리 문화에 대한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동화정책과, 5·60년대 한국의 기민(棄民)적인 듯한 제일동포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다. 김○○님은 제일 거류민단 소속으로 일본 학교의 조선 민족학급에서 민족교육을 담당하다 정년 퇴임하였다. 정년 퇴임 후에도 김○○님은 계속해서 본명사용 운동, 동포 부녀자들의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 및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님은 60년대에 도일하여 공장의 말단 노동자로 고생하는 등의 삶을 거쳐 지금은 오사카에서 ‘○○서림’을 운영하면서 민족문화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박○○님은 조총련계 정치 지도자였던 분인데, 정년 퇴임 후에는 민족의 자존에 관련된 역사를 바로 알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내기 위한 각종의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서, 2003년 1월 20일에 다시 도일하여 4일 동안 이들로부터 보충 조사를 하고, 추가 제보자를 모색한 결과 문○○님으로부터 파란만장한 삶의 발자취를 3시간 이상에 걸쳐 집중적으로 채록하였으며, 또 히가시 오사카시의 제일 동포 할머니들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이분들과의 1차 인터뷰 중에서 생활사이야기의 주요 관심 사항만을 적시하고, 전체 내용은 다른 지면에 정리 수록할 것이다.

(가) 제보자 : 김○○(1926년생, 제주도 출신, 1943년 도일-2002년 1월 14일 오사카)

김○○님은 일본인 학교에 부설된 민족학급에서 우리 동포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역사 등을 전담 강의하면서 정년 퇴임 때까지 활동하고, 그 후에도 부녀자 교육, 본명 쓰기 운동 등의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현재는 오사카 민단 본부의 교육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일상 생활에 관련되는 민족교육은 물론 방학이면 학생들을 이끌고 모국 방문 활동을 주관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김○○님은 제일 동포의 일상이 일본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의 민족 자존과 자주의를 유지 계승하자는 운동의 선봉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상적인 이야기로는, 민족학급 조선어 강사 시절에 학생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족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일, 교사에 대한 일본 당국의 차별, 총련계 민족학교측의 비난 어린 눈길을 감내한 고통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광산 김씨 전용 묘원 설립의 금지, 본국에서 온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일, 본명 쓰기 운동의 성과와 금지, 우리말을 일본의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하면서 일본인 학습자가 증가하는 일, 가정교육 특히 어머니 교육에 제일 동포의 앞날이 달렸다는 진단 등이다.

(나) 제보자 : 송○○(1927년생, 목포출신, 1940년 도일, 오사카에서 녹음)

송○○님은 특히 민족의식이 강하고 신념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에 일생을 바친 분답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너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도 시종 꼳꼳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 민족학교 교육의 순수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이상숭배로의 변질, 지나치게 외길로만 치달았던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반통일적인 듯한 역작용, 북송 동포들의 생활과 인권의 처지, 민족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총련의 지시·강령을 추종하던 과거의 삶과 오늘날 남북의 현실을 비교할 때 느끼는 회의, 뒤늦게 조용히 고향을 방문해야 하는 자신의 현재 심정 등에 대한 회오도 함께 술회하였다. 자신의 직계 자녀는 물론 외손들도 모두 민족학교에 취학시켜 우리말 우리 문화를 배우게 하는 등 민족문화와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는 몇몇한 삶의 자세 등에 대한 신념이 뚜렷한 분이였다. 인터뷰가 끝나자 계면쩍은 얼굴을 하시면서 평소에 써 두었던 원고를 보여 주셨다. 필자는 때를 써서 그 원고를 입수하고 조심스레 활용할 것을 약속드렸다. 두 편의 원고 모두가 조국과 민족의 앞날 특히 통일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며 심혈을 다하여 기원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 원고는 다른 기회에 인터뷰 자료와 함께 간행할 예정이다.

(다) 제보자 : 이○○(19○○년생, 2002년 1월 12일 서울서림에서 녹음)

이○○님은 1968년에 밀항하여 고생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일 동포 2세와 결혼하여 영주하게 된 분이다. 대학생 시절에 밀항했으니 당시의 반정부 학생 운동과 관계 있는 듯하다. 초기에는 공장 노동자 생활 등을 거쳐 오사카 지역 동포 장학회에서 민족교육 강사로 봉사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를 일본에 알리고,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심는데 기여하고자 본국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일을 계속 운영하면서 한국과의 교류사업을 벌이고 있다.

(라) 제보자 : 박○○(1928년생, 충남 연성, 2002년 1월 16일 오사카 신한 큐 호텔)

(마) 제보자 : 문○○(1916년생, 전남 영암, 2003년 1월 23일 오사카 이쿠노꾸 자택)

(바) 제보자 : 박○○(1920년생, 경북 영덕, 2003년 1월 22일 동오사카 '사랑방'에서)

(사) 제보자 : 정○○(제일동포 2세, 2003년 1월 22일 동오사카 '안방'에서)

(아) 기타 제보자 5명(위와 같은 날 동오사카 '안방'과 '사랑방'에서)

(라)~(아)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그 채록 경위와 장소, 전반적 성격 등에 대해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내용의 개요를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10여 명 제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문자로 옮긴 분량을 보면, 김○○님이 150매, 송○○님이 250매, 이○○님이 80매, 문○○님이 350매, 박○○님이 40매, 그리고 동 오사카의 안방과 사랑방에서 여러 노인들을 대상으로 채록한 것이 200매로서 도합 1000여 매이다. 이들 인터뷰 자료는 다른 기회에 정리 간행할 것이다.

다) 비디오 테이프 자료 - 「전후 제일 50년사」

이 자료는 2002년 1월 오사카 지역 현지 조사에서 구하게 된 자료이다. <전후 제일의 50년사> 제작위원회가 주관하고, 제일 한국인청년상공인연합회가

협찬하여 만든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전후 50년을 6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제일 한인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 정책적 변화, 그에 대응하는 우리 동포의 개인적·집단적 저항이나 권리 찾기 운동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일종의 기록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자료인데, 상영 시간이 6시간에 걸치는 대작으로서 그 제작·편집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뚜렷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건·사고 내지는 저항 투쟁 등의 자료들을 모으고 재구성함으로써 그에 관련된 제일 한인의 개인적·집단적 관심과 의식의 변화 등을 심도 깊게 추적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외국인 신세가 되어버린 제일 동포, 지참금 및 이삿짐의 지나친 제한으로 귀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일시적 귀국 보류가 조국의 분단과 전쟁 등으로 계속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현실 등 제일 동포의 운명에 직결되는 사건들이 시기별로 뚜렷이 제시되고 있다.

전반부의 내용이 주로 제일 동포의 정치적·법적 관련 사건 중심임에 반해 후반부의 내용은 생활사에 가깝다. 이는 여섯 편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단편물이다. <가족>이라는 소제목 아래 제일 1세 정병춘씨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가 하면 <고향 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제일 2세 예술가 허정웅씨의 삶을 조명하기도 한다. <제일부루스>에서는 대중가요의 인기 가수인 新井英一의 뿌리찾기 운동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도전>이라는 소제목으로는 제일 3세 방송인(카메라기사)인 현창일의 또 다른 뿌리찾기 운동을 조명하고 있다. 이밖에 <비상>, <내일> 등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제일 3세들의 생활사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생활사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가족」 - 정병춘 (제일 1세)

정병춘(79세)님은 1917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12세 때 도일하여 오사카의 공장에서 일했으며 19세에 결혼하여, 3남 4녀의 어머니로서 해방 후 일시 귀국했으나 1948년 4·3사건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다시 도일한다. 이후 50년 간을 혼자서 자식을 키우며 일본에서 살았다. 1950년대에는 주로 당시 불법이었던 파친코 경품 교환 등을 하며 어린 나이에 경찰서를 수 없이 드나들었다. 그녀의 가족 중에 제주도에 남아 있던 넷째 딸이 불법으로 일본으로 건

너오다 붙잡혀 1964년 나가사키의 오오무라 수용소에 억류된 것을 빼오기도 했고, 1972년에 셋째 딸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귀국하기도 했다. 이 일은 그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통일이 된다면 서로 방문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생활이 힘든 것을 알고 일본의 형제들이 돈을 모아 보내주었더니 그 돈이면 북한에서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며 고마워했다. 그녀는 일본 동경의 신주쿠에서 45년 이상 일하며 살아왔는데, 일본인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어한다.

(나) 「고향 들」 - 하정웅 (재일 2세-1939년 오사카 출생)

재일동포 예술인이다. 광복50주년 기념축전에 조국을 빛낸 동포로서 한국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아 명예서울시민상을 받는다. 그는 어린 시절 秋田縣 田澤湖 수력발전소 건립 당시 아버지를 따라 田澤町로 이주해 살았는데, 그 당시 이 공사에는 많은 조선사람들이 징용당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공사의 발파작업 중에 수십 명의 조선인노동자들이 죽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해방 후 그의 가족은 귀국하려고 했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 마을로 다시 돌아와 살았는데, 빈곤 때문에 양친이 싸우는 것을 많이 보았다. 어린 하정웅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그 마을을 떠나 20여 년 간 타지에서 전전한 끝에 다시 그 마을의 중학교 교사로 정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에게 뜻 있는 일은, 다자와호 발전소 건립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을 위한 추모 관음보살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추적을 통해 자신의 작품으로 추모 비석을 세운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그 마을의 어려웠던 한일 간의 과거 역사를 화해로 이끄는 새로운 미래의 계기로 만들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가 별세하기 1년 전에 고향인 전라남도 영암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조국에 대한 뿌리를 강하게 느끼기 시작함으로써 조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재일부루스」 - 新井英一 (재일 2세- 본명 박영일)

귀화한 재일 동포 2세 가수로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을 가사로 쓴 「清川への道(청하가는 길)」을 불러 1995년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한 가수이다.

그는 제일 한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연간 150회의 라이브 공연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강행하는 등 정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5세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신 후, 그는 학교를 그만 두고 山口縣의 한 미군 기지에서 바텐더 생활을 하며 처음 재즈음악과 만난다. 그 생활 속에서 일본에서는 느끼기 힘든 자유롭고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음악공부를 위해 21세 때 미국으로 건너간다. 25세에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음악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청하를 찾게 되었는데, 그 찾아가는 여정을 긴 노래가사로 작곡하여 1995년 일본 레코드 대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비록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아버지의 고향이 한국의 땅 경북 청하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귀화 여부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자신의 조국은 한국이며 그의 아버지는 그 옛날 바다를 건너온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뿌리 찾기를 계속할 것이며 자손들에게도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뿌리에 대한 정신을 남길 것이라고 한다. 그것만이 자손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 「도전」 - 현창일 (제일 3세)

현창일은 이바라키 출신의 23세 청년으로 입사 1년째의 니혼테레비 보도카메라맨이다. 그의 꿈은 카메라맨으로서 일본인의 루트를 찾아보고 싶어한다. 그의 3대 조상은 대구에서 살았으며, 12대 조상은 서울에서 살았고 그 이전의 조상은 지금의 북한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뿌리를 찾는 일을 그는 하고 싶어한다. 일본이 단일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계통을 그는 카메라맨으로서 추적하여 찾아내고 싶어한다. 그 속에서 한반도가 뿌리인 자신의 역사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마) 「비상」 - 김상룡 (제일 3세)

김상룡은 24세의 제일 동포 출신 10종경기 육상선수이다. 그는 고베에서 고

등학교까지 조선계 학교를 다녔고 순천당 대학 육상부로 진학, 졸업 후 지금은 「골드윙」이라고 하는 일본 스포츠용품회사 소속의 육상선수로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그의 꿈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하는 것인데, 출전할 때 그는 조선국적으로서 출전하고 싶어한다. 비록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국적은 조선국적을 지녔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가능하면 조선국적으로 출전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자신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은 하나의 원칙과도 통한다고 한다.

(바) 「내일」 - 이영자 (제일 3세)

이영자는 20세의 동경농업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그의 어머니는 40여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양친을 잃은 탄광촌의 4형제자매의 이야기를 일기형식으로 쓴『にあんちゃん』의 작가 安本末子이다. 어린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다른, 자기 집의 분위기와 어둡고 어지러운 조국의 현실을 혐오했다. 그러한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19세 때 한국을 방문하여 그 속에서 느낀 조국의 민족문화였다. 그 민족문화에서 무언가 힘이 솟아날 것 같았고 튀어 오를 것만 같은 기분의 한국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작품의 배경인 사가현 히젠초의 오오즈루 탄광촌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있다. 지금은 탄광촌이 문을 닫아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어려웠던 시절 그의 어머니가 느끼고 겪었던 그 마을을 방문해 봄으로써 그녀는 자기의 뿌리가 살았던 곳을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며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라) 설문조사 자료

설문조사는 공동연구원들이 힘을 모아, 정체성·민속·생활사 영역을 두루 망라하여 64문항을 만들고 오사카 고베 지역의 현지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예정인원은 200여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회수한 응답자는 133명이었다. 전체 문항 중에서 공통 항목을 제외한 본인의 연구 분야 관련 항목은 모두 7문항이다. 여기서는 우선 빈도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 교차 분석 결과는 필

요에 따라 서술할 것이다.⁹⁾ 빈도 분석 결과는 제일 한인생활사이야기의 주요 내용과 관심사 그리고 서사문학적 형상의 항목에서 상당 정도의 비중으로 활용될 것이다.

(가) 당신의 일본 체재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60년 이상(27.7%), 50년-59년(25.4%), 40년-49년(9.2%), 30년-39년(13.8%), 20-29년(13.8%), 10년-19년(8.5%), 기타(1.6%) 등으로 나타난다. 이로 보건대 조사 대상자는 대체로 제일 1세대 및 2세대가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나) 당신의 도일(渡日)동기는 무엇입니까?

생계 해결(54%), 강제 징용(10%), 돈벌이(5.8%), 기타(29.2%)의 분포를 보였다. 강제 징용이 생각보다 적은 까닭은 제일 2,3세가 많은 때문이다. 기타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이들이 아닐까 한다.

(다) 전쟁 전, 일본에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공사장 노무자(31.8%), 공장 노동자(14%), 행상(9.3%), 음식점(9.3%), 기타(35.8%)의 분포이다. 전쟁 이전의 직업을 물었기에 기타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쟁 이후 출생자로서 질문에 해당 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 일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 출산(39%), 광복(15.2%), 결혼(16.2%), 사업 성공(8.6%), 기타(21%)의 분포를 보인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정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듯하다.

(마) 가장 괴로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질병(27.2%), 가난(25.2%), 실직(9.7%), 사업 실패(7.8%), 기타(30.8%)의 분포를 보인다. 가난과 질병, 실직이 그들의 삶에 얼마만한 공포인가를 잘 보여주는

9) 설문 조사는 200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행하였다. 윤일성 교수와 필자가 함께 도일하여, 오사카와 고베 지역의 한국인 유학생 및 민단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권현주, 박정익님의 협조에 힘입은 바 컸음을 밝혀둔다. 설문지는 일본어로 작성한 것이다.

대목이다.

(바) 당신은 한국어를 얼마만큼 사용합니까?

자주 사용한다(34.4%), 가끔 사용한다(39.8%), 친척 만날 때만 조금 사용한다(6.3%),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16.4%),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3.1%)의 분포를 보인다. 응답자의 70% 안팎이 상황에 따라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제일 1세대 내지는 2세대로서 그 소통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들 응답자는 우리말로 최소한의 의사 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제일 1, 2세대가 조사 대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성공(48.7%), 사회적 위치(25.7%), 학문적 성취(8.8%), 조국과 민족에(8.8%), 기타(8.8%)의 분포를 보인다.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일본에서의 자기 위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Ⅲ. 재일 한인 생활사이야기의 주요 내용

위에서 살펴본 생활사이야기의 각종 자료들에 나타난 주요 내용 즉 재일 한인의 생활과 의식세계를 지배해 온 주요 관심사들을 아래에 정리하여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종의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생활사이야기를 중심으로 두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류 논의한 경우는 드물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설문 자료와 인터뷰 자료 그리고 기존의 문헌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되, 그 사례가 매우 방대하므로 주요 항목만을 열거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서사문학 작품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가) 독일의 동기와 과정

독일의 근본 동기는 일본의 식민지 수탈로 인한 경제적 몰락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독일과 강제 동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 후에는 대규모

공사장이나 공장 노동자 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하루살이처럼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삶이다. 공사장이나 공장노동자로의 취업은 조선의 값싼 노동자를 활용하려는 당시 일본의 국가 내지는 기업의 정책과 부합되기도 한다.

먼저, 앞서 보인 『백만인의 신세타령』에서 인터뷰한 110명의 경우를 예로 하여 독일의 동기를 살펴보면, ①생존을 위한 무작정 독일(12명), ②모집광고를 보고(10), ③남편, 부모, 친척 등을 찾아서(19명), ④징용 징병 등의 강제동원(49), ⑤유학(3)등의 분포를 보인다. 이밖에 일본 관헌이나 친일 분자와의 대립 갈등으로 인한 피신처로 무작정 도일을 감행하는 경우와 함께 2세들의 경우도 몇몇 보인다. 이 중에서 ①, ②, ③은 대체로 생계 해결을 위한 도일에 가까운데, 그 비율이 40% 정도이다.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강제동원(10%), 생계 해결 및 돈벌이를 위한 독일(59%), 기타(29%)등의 분포를 보인다. 강제동원이 위의 경우보다 적은 까닭은 조사자의 63%가 여성이라는 이유와 함께, 『백만인의 신세타령』의 경우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서이기 때문인 듯하다. 양자의 모드를 볼 때 독일의 동기 및 과정은 생존을 위한 막다른 선택이거나 강제 동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광복 이전 일본에서 간행된 통계자료¹⁰⁾와도 대동소이한 것이다. 『백만인의 신세타령』에 보이는 독일의 동기과 과정에 얽힌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나는 경상북도라고 하는 곳에서 1910년에 태어났다. 집은 일반 평민이었다. 쌀농사는 지었지만 쌀은 먹을 수가 없었다. 언제나 배가 고팠던 것이 그 시절의 조선인들이었다. 내가 15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와 양친은 만주로 가 버리고 나는 조선에 남아 있었다. 「너는 이미 15세이니 시집갈 나이도 되었으니 만주에 따라가 보았자 시집가기 힘들 테니 여기에 남아 시집이나 가거라.」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다음해에 나는 결혼을 했는데 부모들끼리 정한 결혼으로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남편은 20세였다. 나의 결혼을 울리고 다시 만주로 간 부모님들은 연락이 끊어졌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이다.(중략) 하지만 궁핍함은 점점 심해갔다.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빌린 돈은 늘어나기만 하고 이려다간 결국 식구가 모두 굶어

10) 강제연·김동훈, 하우봉·홍성덕 옮김, 『제일한국조선인-역사와 전망』(소화, 2000), 29~62쪽 참조.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이리다간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 보내라고 말씀하셨다.¹¹⁾

(나) 생업과 주거 : 떠돌이 신세

제일 한인들의 생업은 각종 공사장의 일용직 노동자, 공장의 단순 노무자, 탄광의 광부, 행상, 암거래상, 공사장의 밥장사, 고물상(폐품 수집), 신문 배달, 샛바느질, 선술집 등이다. 특히 강제동원자의 대부분은 탄광의 광부나 대규모 토목공사장의 잡역부로 일했으며, 여성 징용자의 경우에는 중군위안부도 상당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강제 동원된 이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구속적 일상이야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자의적 도일에 의한 취업자들의 경우에도 그 생활상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때문에 그들은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샛바느질이나 술장사 밥장사 등으로 연명하는가 하면, 전쟁 중에는 판매 금지 물품들을 암거래하다가 체포 구금되는 사례 등 생존을 위한 밑바닥 인생 그 자체이다. 이런 와중에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고향의 부모 처자에게 송금을 하는 등의 눈물겨운 사연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관동대지진 때의 참상에 관한 증언을 예로 든다.

9월1일 11시 58분 경이었습니다. 그 때는 가스가 없었던 때라 주로 풍로 등으로 불을 지피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때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을 지핀 집이 많았습니다. 그 때는 주로 판자집이 많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쉽게 무너지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공장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집에 가보니 집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살던 집만이 아니라 동경의 시가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쯤에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중략)

그리고 이시카와시마 조선소 앞의 다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지진이 멈췄을 무렵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불잡은 사람을 끌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 무리 속에서 「조선인이 했다. 조선인을 죽여라.」라고 하는 고향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빨랫줄을 걸어 올리는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어 들고, 대장간의 낫을 모두 손에 들고 조선인을 찾아다녔습니다.¹²⁾

11) 前田憲二 외, 『百萬人の身世打鈴』(東方出版, 1999), 284쪽

12) 위의 책, 212쪽.

(다) 차별과 대응

이는 그 사례가 너무 많아 예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법적 제도적 차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로 조건 즉 임금과¹³⁾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차별도 매우 심했다. 여기서는 한 두 사례만 제시한다.

조선인 여공은 일본인 여공에 비해서 능률은 낮지만 식사, 주택 등에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생활정도가 낮고 일본인 여공에 비해서 임금이 저렴하고 작업 성적이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같은 해 7월에 다시 제2회로서 100명의 조선인 여직공을 모집하여 이들을 회사의 4곳의 공장에 취업을 시키게 되었다.(중략)

게다가 공장에서는 면화의 먼지가 매우 많이 날아다녔다. 원면을 처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은 눈이 내리고 있는 곳에서 노동하는 것과 같았다. 여공들 전원이 새하얀 눈사람과 같은 광경이었기 때문에 당연 폐병도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당시 기시와다 방직의 일본인 인사계의 증언). 이러한 비위생적 환경, 감독의 폭력에도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노동, 거기에 영양 부족의 식사가 계속되었다. 또 기숙사에서는 한 장의 이불을 깔아만 놓고 야근과 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상태였다. 결핵, 혈변 등으로 쓰러지는 자, 잠을 못 자서 일터에서 다치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결국 타국 땅에서 불귀의 객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라) 조국의 분단 현실과 대응

광복 직후의 좌우 대립, 건국 이후의 남북 대립 및 한국전쟁의 발발에 따라 제일 한인 사회는 두 조각으로 분열되어 심한 대립 갈등을 보인다.¹⁵⁾ 그러다가 59년부터 제일 동포 중의 상당수(약 9만)가 북송선을 탔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대립을 보였다. 이들의 북행 동기는 일본에서의 차별 현실, 지상낙원(?)이라

13) 당시의 우리 동포 노무자들이 받는 임금은 일본인의 6·70% 내지는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제연 외, 앞의 책, 73~76쪽을 참조.

14) 杉原達,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新幹社, 1998), 65~66쪽.

15) 이에 대해서는 송○○님의 인터뷰에서 여실히 알 수 있었다. 공산 침략자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민단측의 청년들이 참전하여 130여 명의 사망자가 국군 묘지에 안장되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미군의 전쟁물자가 한반도로 수송되지 못하도록 일본에서 조직적인 방해로 하는 동포들의 활약(송○○님의 인터뷰 증언)도 있었다고 한다.

고 선전하는 조국에의 귀의 등의 명분과 함께 민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명분도 함께 작용했다. 비디오 및 인터뷰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엘리트의 상당수가 북송선을 탔다고 한다. 그리고 한일 국교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대립 및 70년대 이후 한국의 고향방문사업으로 그 대립상이 심각해지다가 남북한 지도자들이 화해의 길을 걷게 되는 7·4남북공동성명과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등의 사건 때는 서로 얼싸안는 환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국의 정치 현실과 이념에 따라 조총련과 민단으로 대립 투쟁하던 단계에서 제일 한인사회도 이제는 남북이라는 현실 정치 차원을 벗어나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고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¹⁶⁾ 이와 함께 상당수의 동포 실업인들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가 하면 모국 유학, 성묘 방문단 등으로 자유로이 왕래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마) 취학과 교육

광복 직후의 왕성한 민족교육은 이데올로기에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우리말 우리글 익히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이 주류였다. 미 군정청의 지시를 빌미로 내려진 우리 민족학교 철폐령과 그에 저항한 유혈 시위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서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이 되자 조총련과 민단은 교육에서도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1957년에 시작한 소위 교육지원금을 고비로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¹⁷⁾

이로 인하여 조총련계 학교, 민단계 학교, 일본 학교 등의 취학 선택을 두고 겪게 되는 현실적 고뇌도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봉책으로 시행된 일본인학교에서의 민족학급 운영에 따른 차별, 이 와중에 전개되는 본명 사용운동,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위 각종학교법에 의한 차별도 심각하다.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함은 물론 학생 통학 할인 혜택에서마저 제외될 정도이다. 교육 문제에 대한 차별상은 김○○, 송○○님의 인터뷰 자료는 물론 일본인 학자의 저서인 『제일 조선인 교육의 역사』(오자와 유사쿠)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16) 오사카의 '이쿠노민족문화제', 정길수의 '원 코리아' 운동 등이 바로 이러한 흐름의 일단이 아닐까 한다.

17) 송○○님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 망향 의식

제일 동포 1세대의 궁극적 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공 후에 금의환향하여 고향의 문중이나 친지들과 해후하고 각종의 향토 발전 사업, 장학사업, 향우회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하면, 조상의 고향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으로 조국 방문길에 오르는 경우 등도 있다. 元秀一의 <귀향>, 金蒼生의 <세 자매>라는 소설과, 新井英一의 노래<청하 가는 길> 등에 이러한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자료는 『국경을 넘은 사람들』 및 『제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 과정』, 『일본에서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에 비교적 소상한 자료가 많이 있다. 한 가지 예만 들기로 한다.

그 후 정치이념을 초월해서 친목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친목활동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1967년 10월에 고향의 국민학교에 피아노를, 1972년 6월에 고향의 전기 가설에 회원들이 600만 엔을 송금하는 등 고향의 생활 개선에 얼마간의 기여를 했다. 현재 동경과 오사카에 친목회가 있고, 오사카 쪽은 규모가 크다. 동경만 약 80세대, 가족까지 합하면 300여명 정도로 대부분 동경에 집중해서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이타마, 치바 등에도 각각 몇 사람이 살고 있다.¹⁸⁾

(사) 장례와 제사

제일 한인의 일가나 친지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장례와 제삿날이다. 이날만은 총련과 민단을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고향이야기랑 세상사는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이 자리에서 이테올로기 논쟁이 가열되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소설 작품을 분석하는 항목에서 다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아) 혼인과 예식

이 문제는 혼인 대상자의 선정, 혼인으로 인한 국적 변동 문제, 혼인 절차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 또한 소설 작품을 분석하는 항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18) 高鮮徽, 앞의 책, 225쪽.

(자) 국적 문제

조선, 한국, 일본으로의 귀화 등을 두고 겪는 갈등을 말한다. 50년대, 60년대까지는 북한 국적이 많았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으로의 전향자가 많다. 그 까닭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반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북한의 현실과 함께 공산주의 국가의 범세계적 몰락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일 한인의 절대 다수(98%)가 고향을 남쪽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일 한인 3세부터는 일본으로의 귀화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40년대 말기의 제일동포가 60여만 명이었는데, 지금도 그 숫자가 비슷한 현실은 바로 이의 반증이 아닐까 한다. 이런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뇌와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들을 살필 것이다.

IV. 제일 한인 생활사이야기의 서사문학적 형상

문헌에 구술 채록된 생활사이야기는 대체로 식민 통치에 의해 빼앗기고 내쫓긴 사람들의 회고적인 분노와 하소연이 주류를 이룬다. 『백만인의 신세타령』이라는 이름의 자료와 『방랑전』 등이 그러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경을 넘은 사람들』과 『제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과정』 등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먹을 것이 있는 낯선 땅을 찾아 강인한 생활력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는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자 모두 침략자의 만행으로 빼앗긴 사람들에게 의해 생겨난 ‘제일’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면담을 통해 채록한 제보자들의 경우도 그 파란만장한 지난날의 고통이야 모두 한가지로 일치되었지만 오늘의 심정이나 각오는 비교적 화해와 공존 지향적인 것이었다. 다만 한결같은 염려는 우리 민족의 말, 역사와 문화가 후손들에게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와 동시에 그 계승과 보전을 회구하는 마음들이었다. 기록 영화 형식으로 녹화된 비디오 자료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생활사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도일의 동기와 과정, 생업과 주거, 조국의 분단

현실과 대응, 차별과 저항, 취학과 교육, 망향 의식, 장례와 제사, 혼인과 예식, 국적 문제 등으로 나누어 그 개략적인 실상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관심사들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서사문학 작품들에 내재된 의미는 한결 격조 높은 차원으로 읽힐 수 있는 경우가 상당한 듯하다. 말하자면, 과거를 탓하기만 하는 분노 지향적 태도를 넘어 오늘의 시각에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통해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짐하면서 돌아나는 속살을 소중히 가꾸어내는 경지를 지향한다고나 할까. 이런 관점에서 서사적 형상화의 양상을 다섯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추론해보기로 한다.

가) 일본 속에 심은 한인 마을 - <희락원>을 중심으로

제일 한인들이 일본에서 대규모 마을을 이루며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오사카의 이카이노, 도쿄 외곽의 가와사키,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카이노는 일찍부터 마련된 제일 한인들의 집거지로서 유명하다. 오사카의 동남부에 위치한 이카이노(猪飼野)는 조선인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돼지를 기르는 들판’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 유래를 담고 있다. 이 지역은 1920년대부터 시작된 히라노강(平野川) 제방공사 등의 대형 토목공사에 몰려든 동포들을 중심으로 빈민촌이 형성되면서, 점차 신발 부품을 제조하는 가내 공업, 불고기집, 선술집 등을 생업으로 하는 동포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이곳의 조선인들은 제주도 출신의 동포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내쫓긴 사람들이 생존의 길을 찾아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이 지역에서의 삶을 테마로 그리고 있는 소설들이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출신의 작가들 또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元秀(1950~), 金蒼生(1951~), 宗秋月(1944~) 등을 들 수 있다.¹⁹⁾ 이카이노를 일본 속에서 새로이 일구어낸 고향으로 인식하면서 우리 한인들이 공동체적 삶을 꾸리

19) 이 지역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의 글로는 유숙자, 「오사카(大阪) 이카이노(猪飼野)의 在日한국인 문학」, 『한국학연구 12』(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0), 122~146쪽을 참조.

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들로 우리는 원수일의 <회락원>·<운하>·<뱀과 개구리>, 그리고 김창생의 <일본 속의 고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⁰⁾ 여기서는 <회락원>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사이아가 지닌 소설적 형상과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회락원>은 이카이노에 있는 호르몬(곱창) 구이 가게의 이름이다. 이 가게의 여주인인 승옥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과부로서 제주도 출신 여성 특유의 생활력을 지닌 인물이면서 상냥하고 발랄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주인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은 때로는 고향 친구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를 대하듯 각자의 고민을 스스럼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게다가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은 그녀의 음식 솜씨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배경 설정을 바탕으로 이 소설에는 4개의 에피소드가 병렬적 구조로 결합되어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을 두고 벌이는 설전이다. 여기에는 이카이노 출신의 문세광이, 한국의 권력투쟁에서 이용당했다는 시각과, 그러한 주장은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다. 즉 '회락원'을 찾은 두 여자 손님-양장을 한 여인과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과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맛산'이라는 인물이 그 대립의 중심에서 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은, 대통령의 부인이 미국 CIA의 스파이이며 이 때문에 박정희와 사사건건 대립을 했다는 소문을 진실처럼 믿고 있다. 그래서 부담을 느낀 대통령이 그 부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세광이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상당히 반미적이고도 반독재적 분위기로²¹⁾ 옮겨간다. 여기서 반독재 반미의 선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 맛산에게는 마치 '스파이 소설'(32쪽)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20) 원수일의 작품은 그의 작품집인 『豬飼野物語』(草風館, 1987)을, 그리고 김창생의 작품은 그의 작품집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國と異國』(風媒司, 1985)에 수록된 것을 각각 텍스트로 하였다.

21) 제일 동포 중에서 총련계의 민족학교에서 교육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반미적인 성향을 보인다. 송○○님의 인터뷰, 김창생의 작품집, 그리고 오자와 유사쿠의 저술(『제일 조선인 교육의 역사』) 등에서 이와 같은 문맥을 꽤 많이 찾을 수 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에게 전해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스페인 소설을 너무나 많이 읽은 나머지 이를 그것처럼 다시 각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치마저고리의 말대로라면 문세광은 혁명투사가 아닌 허수아비에 불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는 제일 한인들이 처한 정치적 입장 때문이다. 그들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지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갈등 없이 지내다가도 정치적 사건만 터지면 대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 차이는 쉽사리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문세광 사건으로 인한 시각의 차이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일본 속의 한인 마을이 이 문제로 겪은 파문이 얼마만한 것인가를 들추어내기보다는 조국 정치의 여러 사건 중에서 특히 이 지역 출신 인물의 범행이 갖는 평가를 통해 그 정치적 논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 또한 만만찮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방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구나.”(34쪽)라는 말로서 두 사람의 다툼을 화해시키려 하는 승옥의 태도는 이카이노에서 살아가는 제일 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같이 살아가는 현실임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도의 발현이라 하겠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들이 빚만 남기고 야반도주해 버린 순미의 녀두리와, 두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회락원의 주인 승옥의 상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순미는 일본인 회사에서 근무해 보았자 별 것 없다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장사를 권했지만, 장사에 별 뜻이 없던 아들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마침내는 돈이 될 만한 것을 모두 챙겨 늙은 어미만 남기고 도주해 버렸던 것이다. 이에 상심한 순미는 승옥을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지만, 정작 승옥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다. 그녀에게는 일본 여자와 동거하다 버림받은 충격으로 자살해버린 큰아들, 주정뱅이가 되어 추운 겨울에 얼어죽은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식 둘을 앞세워 저 세상으로 보낸 승옥이 처절한 사연을 이야기하자, 순미는 자신의 언행을 부끄러워하면서 도리어 승옥을 위로하게 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부모 자식간의 갈등관계로 비치기도 하는 이 이야기들에는 제일 1세대와 2세대의 가치관의 차이와 일본 내에서의 차별과 그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일 1세대의 경우 대개 징용으로 끌려 왔거나, 삶의 방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일본 사회에서 마을을 형성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애초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일본에서의 삶이 만만찮을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2세대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2세대 제일 한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스스로 고향이라고 내세울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그것이 구체적 현실에서 엄청난 차별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자신들의 실존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순미의 아들이나 승옥의 큰아들처럼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부당한 차별에 맞서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다. 차별의 벽은 높고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벽을 쉽게 넘을 수 없다. 승옥의 큰아들처럼, 대학에 다니면서 무정부주의적 연사²²⁾를 내뱉던 자의식 강한 청년도 일본인 여자와 혼인하여 현실의 장벽을 넘으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온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여자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참담한 사실이였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아들 역시 취업에서의 차별 때문에 겪은 좌절이 죽음의 원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야반도주한 순미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회사에 다녀 보았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35쪽)다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장사를 시켰지만, 원래 장사에 소질이 없었던 그는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더욱이 일본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지만, 이 또한 제일 1세대와의 문화적 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승옥과 순미는 아들의 죽음이나 도주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야반도주했다

22) 승옥의 큰아들은 대학에 다닐 때 승옥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곧잘 내뱉는다. 그녀가 작은 아들을 통해 겨우 알아들은 내용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처음부터 잘못이고 나라가 있으니까 인간이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없애야 한다.”(40쪽)는 내용이었다. 제일을 구성하는 현실적 조건이 이와 같은 청년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순미의 뉘두리에 ‘살아있다는 게 고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38쪽)고 하는 승옥의 위로가 바로 그러하다. 한때, 승옥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끝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런 처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실제로 삶이란 것이 그리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희락원에서는 가끔 술꾼들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날의 싸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제일 한인을 멸시하는 일본인과 거기에 격분한 청년의 유혈극이기 때문이다. 싸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본인 여자가 신부감으로 더 좋으나, 아니면 한국인 여자가 더 좋으나 하는 문제는 사실 표면적인 것이다. 정작 문제는 알로하 셔츠를 입은 그 일본인이 ‘나는 시바타(柴田)라고 하는 순수한 일본 사람’(44쪽)이라며 제일 한인을 멸시하는 듯한 그 태도에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를 한국사람이라 하여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등의 인종 차별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러자 한국인 청년 ‘카네얀’이 ‘일본인 색시에게 장가 못 가니까 일부러 한국까지 가서 색시 데리고 온 것’(46쪽)이라고 도발적으로 응수하여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 역시 승옥의 중재로 별탈 없이 마무리된다. 그녀는 감정적인 싸움의 결과 피해를 당하는 쪽은 늘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맛상. 그런 생각으로 이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일본 사람이 우리들 조선 사람 당하는 것을 보고 맛상처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조선 인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에는 일본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아? 일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조선 사람 쫓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내 말 틀렸나?”²⁴⁾

승옥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일본인과의 다툼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그것이 제일 한인들이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인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차별받는 소수 민족으로서

23) 다음의 구절을 보자. “언니,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생각해서 오늘까 지 살아왔어. 그런데도 그렇게 간단히 인생은 끝나지 않아.”(43쪽)

24) 원수일, 앞의 책, 45~48쪽.

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일본인이 다 치기라도 한다면 결국 복수를 당하는 사람은 그의 한국인 아내라며 카네안을 달래는 것이다.²⁵⁾ 그녀의 이런 태도는 지나친 피해의식의 표출 등으로만 파악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본인이 던진 유리컵을 맨손으로 민첩하게 막으면서 손에 상처를 입기까지 한다. 자칫하면 크게 번질 뻔한 사태를 자신이 대신 상처를 입음으로써 막아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붉은 피가 똑똑 떨어지는 그녀의 손의 상처는 매우 상징적이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한국인 형제 사이의 다툼이다. 작가는 카네안과 알로하 셔츠 사이의 싸움도 이 다툼에 비하면 ‘파리똥’(49쪽)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싸움 역시 앞의 싸움처럼 주먹다짐으로 비화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동생은 형의 생각에 지나칠 정도로 반발하면서도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동생의 질책에 흥분을 이기지 못한 형의 주먹질과, 형의 평소 처신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동생간의 견해차가 크게 부각될 뿐 물리적 충돌 자체는 크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제일 2 세대 이후의 삶과 1세대간의 가치관적 차이, 그리고 형제 사이에서도 일본으로의 귀화나, 민족 국적의 고수냐 하는 문제가 제일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싸움의 첫 번째 원인은 아버지의 삶에 있다. 그들 키노시타(木下) 형제의 아버지는 같은 조선인에게 돈을 모두 빌려주고는 빈털터리가 된 채 죽어버렸다. 물론 아버지는 그 돈을 돈놀이할 목적으로 빌려 준 것이 아니다. 다만 같은 제주도 출신의 후배나 친지가 생활고를 호소할 때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었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삶은 ‘형’에게는 실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 가고도 갚지 않는 조선인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뿐이며, 이를 위해 조선인이기를

25) “잘 들어 카네안. 여기에서 그 젊은이 눈이 안보이게 된다든지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해봐. 나중에 복수를 누가 당하겠는가? 그 젊은이 색시잖아. 저 젊은이가 색시에게 ‘너희들 조센징 야만인’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색시가 괴로워지는 것이냐.”(49쪽)

그만 두고 일본으로 귀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동생에게 아버지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다. 동생에게 비친 아버지는 그야말로 같은 조선인의 처지가 안타까웠을 뿐이다. 그리고 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드리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갖지 못해 가슴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동생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도 그만큼 다를 수밖에 없다. 형의 경우,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며, 그래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더욱이 이제는 일본으로 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귀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형의 입장은 일본으로 귀화하면 장사하는 데 유리하여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따라서 어머니를 그만큼 더 잘 모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으로 귀화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는 일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 싸움은 형의 일방적인 주먹다짐으로 내달지만 이를 말리는 승욱도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 형제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도 말을 지나치게 했지만, '귀화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는 것만은 그만 두'(54쪽)라며 애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속의 한인 마을이란 온갖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같은 민족끼리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세대간의 갈등, 현실과 이상의 갈등, 세대간의 문화적 갈등 등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거의 모든 갈등이 그 속에 있다. 그곳이 바로 '희락원'이며 그 '희락원'이 있는 곳이 이카이노이다. 그러나 이카이노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다. 그것은 자식을 잃고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승욱의 건강한 생명력으로 승화되어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의 표제이기도 한 '희락원(喜樂園)'은 말 그대로 풀면 기쁘고 즐거운 곳이 아닌가. 그러므로 희락원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고 어루만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희락원이 호르몬 가게라는 것도 흥미를 끈다. 호르몬이란 관서지역의 방언으로 '버리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그 버려진 것을 다듬어 다시 음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그네들의 삶 역시 버려진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일구어내고 있는 것이

다.

그 때문에 승옥은 손님들에게 '마마상'으로 불리는지 모른다. 모든 손님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 제일이라는 쓰린 생채기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 그것이 승옥이라는 인물이며, 그곳이 회락원이라는 공간이다. 이런 온정의 공간이 어우러져 그들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되지 않을까 한다. 제일이라는 상처는 건드릴수록 덧나기 쉽고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다. 서로를 보듬는 이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활력소이자 이카이노를 만든 힘이고, 그들이 일본 속에 한인 마을을 심을 수 있었던 바탕일 것이다.²⁶⁾

나) 세대간의 갈등과 거리 조정 - <울타리 밖으로>²⁷⁾를 중심으로

제일 1세대와 2·3세대는 그 삶의 방식은 물론 의식구조 또한 판이하다. 1세대는 일본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일하여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적지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나갔음에 반해, 2세대 이후의 동포들은²⁸⁾ 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우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26) 소설집 『이카이노 모노가타리』의 저자인 원수일은 후기를 통해 이와 같은 의미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일본국 이카이노(猪飼野) ○○○ 앞’이라고 하는 걸 봉만으로도 제주도에서의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었던 마을에서 자란 나는, 금세기를 되짚는 시점인 1950년에 태어났다. 1950년이라고 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이기도 하다. 원래 이카이노(猪飼野)는 일본이 日帝라고 불렀던 시절에 키미가요호(君が代號)를 타고 표착했던 제주도 사람이 쓰디쓴 경험을 겪으면서 개척한 마을로 통한다. 경위는 어땠던 간에 눌러앉아 살다보면 「타향」이 「고향」으로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진리이다.(중략) 하지만, 이카이노(猪飼野)라는 지명은 1973년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제주도 사람은 지도상에서 사라진 이카이노(猪飼野)의 땅에서 더 한층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일, 앞의 책, 242~245쪽.

27) 이 작품은, 이한창 옮김, 『제일동포 작가 단편집』(소화, 1996)에 수록된 것을 텍스트로 한다. 여기에는 이 작품 외에, 양석일의 <제사>, 박중호의 <울타리 밖으로>, 정승박의 <쫓기는 나날들>, 정윤희의 <한여름의 꿈> 김중명의 <산사 전기>, 김창생의 <세 자매> 등 모두 6편의 작품이 번역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28) 2세대 이후라 하였지만 2세대와 3·4세대간의 차이 또한 심각하다. 같은 2세대 안에서도 광복 이전의 출생자와 광복 이후의 출생자간에도 차이가 있다. 엄밀

에 일본말을 모국어로 여기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1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의 학교에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생활해왔다.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한국이나 조선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겉으로 보아서는 일본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부모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3세대 동포들은 결혼 상대의 폭이 그만큼 제한되므로 일본인과 혼인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²⁹⁾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제일 1세대와 그 후손들의 세대차로 인한 갈등은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일 한인들의 이러한 세대차로 인한 갈등을 그린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 박중호의 <올타리 밖으로>, 김창생의 <甲殼> 등이 바로 그러하다.

<올타리 밖으로>는 1세대의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전후하여 겪게되는 심리적인 갈등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작자인 박중호(1935~)는 홋카이도 출생으로 도쿄외대를 졸업하고 '조선신보사'와 '조선통신사'의 편집을 주관하다가 건강 때문에 낙향하여 가업을 돌보면서 짬짬이 자전적인 작품을 쓰고 있다. 작자의 이러한 삶 때문인지 <올타리 밖으로>의 주인공인 영식의 의식 세계는 상당 정도 작자 자신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⁰⁾ 여기서의 올타리란 부모의 보호막이자, 제일 동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의 여러 가지 제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1세대 혹은 광복 이전에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한 제약을 묵묵히 받아들이며서 인고의 삶을 영위해왔지만 그의 후손들은 사뭇 다르다. 우선, 그들은 조국에 대한 관심이나 문화적 관습, 혈연 의식 등이 부모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 단적인 예가 결혼 문제이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일본인과 자주 접촉하면서 남녀간에 서로 사귀다가 자연스레 결혼으로 논의가 진전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남녀 모두가

히 말한다면, 광복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한 2세대들은 오히려 1세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여기서는 편의상 크게 분류하여 1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로 나누어 본 것이다.

29) 제일 동포가 일본인과 결혼하는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74년의 49.8%에서 1992년에는 81.4%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강제연 외, 앞의 책, 164~170쪽 참조.

30) 이에 대해서는 『제일동포 작가 단편선』, 208~225쪽의 '작가 소개'를 참조.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기가 십상이다. 이로부터 양가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굳어지고 각자의 주장이 다툼으로 옮겨간다.

훗카이도에 살면서 제일동포의 문예지 편집장으로 일하는 주인공 영식은 동포의 결혼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멀리 도쿄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는 딸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부모의 뜻을 별로 거역하지 않았기에 부녀는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일본인과의 결혼 결심을 통보하자 영식은 낭패의 마음과 함께 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 가지로 딸을 설득하지만 결코 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 참담하다. 그는 이미 일본인 여자와의 결혼 문제로 온 집안에 파란을 일으켰던 형의 과거사를 통해 상처받은 부모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더욱 곤혹한 심정에 빠져든다.

한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일본으로 건너와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조선 마을'에서 자랐고, 그 뒤 도쿄의 민족계 고교를 졸업한 아내는 영식과는 다르게 '한국적'인 것, '일본적'인 것에 대해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 강했다. 생리적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민족의식의 함양'이 주요 목적이기도 한 잡지를 만들러 도쿄에 오가는 내가 딸에게 일본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선언을 듣게 될 줄이야.³¹⁾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식 내외는 일찍부터 딸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듯하다. 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이 강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대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쌓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중학생이 되자 일본인학교에 전학시켰고, 부모의 이러한 뜻에 따라 아이들은 일본인 속에서 민족의 성을 쓰는 것에 어떠한 거부함도 없이 그 나름대로 학교생활을 즐기는 듯했으므로 부부는 안심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교육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까지 했던 터이다. 이런 그들에게 딸의 선언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보다 한층 더 강한 반대를 보이는 아내 앞에서 고민에 빠진 딸이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여 영식은 어차피 딸에게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31) 이한창 옮김, 앞의 작품집, 42~43쪽.

없게 된다. 결혼 날짜가 결정되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딸의 혼사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영식은, “큰딸이 결혼합니다만, 고르고 고른 상대가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격다짐으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51쪽)라면서 결혼 초대장을 내밀며 자조와 변명의 태도를 보인다. “쪽바리에게 흘린 녀석의 결혼식 따위는 죽어도 가지 않겠어”(51쪽)라는 큰소리를 뒤로 하면서 그는 딸의 혼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양가의 상견례와 중매인의 선정, 예물과 결혼 준비금, 결혼식장, 피로연, 의상 등의 제반 절차 문제를 두고 빚어지는 견해차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로 부각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주로 어머니와 딸의 갈등으로 연결된다. 예식에서의 한복 차림을 고집하던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피로연에서 만이라도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선으로 한 걸음 물러난다. 그러나 이 사소한 듯한 문제조차도 어머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피로연에서 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인에게 비굴해진다고는 생각지 않아요.”(61쪽)라는 딸에게, 어머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하다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한국인이 자신의 인생의 문을 나서는데 어째서 한복을 입지 않겠다는 거냐,”(61쪽)라면서 언성을 높이자, 딸은 “아버지가 신사(神社)에서 하는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기로 했고, 히데오씨 어머니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피로연에서도 기모노를 입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만 한복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61쪽)라면서 딸은 양가의 입장을 조절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야, 네가 한복을 입고 히데오가 가문 문양이 있는 하카마를 입으면 좋잖아.”

“그러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신랑 신부가 전혀 다른 민족의 상을 입다니 이상하잖아요 기모노와 한복을 따로따로 입은 신랑신부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잘 들어봐, 의상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야.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민족의 마음을 입는다는 거야.”

“이웃나라 사람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민족의식이라면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그만 됐다. 그만큼 말해도 모르겠다면,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말해 두겠지만 할머니와 임마는 한복을 입을 거다. 그것만큼은 절대

로 양보할 수 없으니까.”

“좋아요, 어머니가 무엇을 입든 그것은 어머니 자유예요.”³²⁾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로연의 자리에서 영식은 딸의 호적 문제를 생각하며 다시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힌다. 상대방 가족의 호적으로 입적하겠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영식은 굴욕감을 느낀다. 그러나 결혼을 인정한 단계에서 좋은 싫든 간에 이적(移籍)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결혼하는 것은 딸이니까, 딸이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영식은 어쩌면 딸이 상대방 집으로 입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기대했던 적도 있었다. 자신의 결혼인데도 양가 사이에서 배달인 노릇을 해야만 했던 딸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해 왔기에 딸은 아버지의 의견에 매우 곤혹스런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이리하여 영식은 호적 선택의 문제를 결혼 당사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만, ‘아마도 상대방이 석연찮게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이윽고 친족의 인사 차례에 이르자 영식은 ‘아내의 한복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을까’라는 생각에 잠긴다. 고리타분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으로일까, 아니면 자랑할만한 눈부신 모습으로일까. 그러면서도 아내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녀가 이 식장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적 선택의 길은 달리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영식은 ‘나만이라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면 아내는 너무 외롭게 될 것’이라면서 한복차림의 아내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이처럼 <울타리 밖으로>는 일본인과 재일 동포 자녀의 결혼 문제를 두고 빚어지는 세대간의 갈등을 가족사의 차원에서 밀도 짙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의 결혼 문제는 개인적 가정의 문제를 넘어 재일 한인 모두에게 닥쳐오고 있는 민족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민족의 문화적 혈연적 정체성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일본 땅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닫힌 문을 열어 짓히고 서로를 받아들여 함께 섞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32) 이한창 옮김, 앞의 책, 62쪽.

문제인 것이다.

다) 망향의 소망과 낯선 고향 -〈세 자매〉를 중심으로

제일 1세대의 한결같은 염원은 차별과 박해의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가 남은 여생을 마치고 조상의 묘역에 뼈를 묻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수탈로 인해 내쫓길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의 땅이다. 일본이 패전하고 조국의 광복을 맞았을 때에도 그들 대부분의 손에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었다. 그나마 조금씩 모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귀국의 배편을 구하기가 어려웠음³³⁾은 물론, 휴대품과 현금 소지의 턱없는 제한 때문에 상당수의 동포들은 귀국을 미루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³⁴⁾ 비록 차별과 설움의 땅일망정 이제 전쟁도 끝이 났으니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남부럽지 않은 돈을 모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번에는 조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동족끼리 골육상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자 귀국의 발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던 현실이다.

이카이노 출신의 작가 김창생의 〈세 자매〉³⁵⁾는 이처럼 망향의 한을 가슴에 안고 이국에서 숨진 부모의 제삿날에 만난 세 자매들의 가난하지만 인정 있게 사는 모습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잔잔한 감동의 필치로 그리고 있다. 장남 천수, 그 아래 아들 셋, 큰딸 화덕이, 둘째딸 화순이 그리고 셋째딸 화선이 이렇게 일곱 형제 자매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이다. 걸핏하면 부부싸움에 손찌검까지 일삼는 아버지의 횡포와 어머니의 아픔을 지켜보며 성장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막내딸 화선은 어서 빨리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나고 싶은 다짐을 수없이 하곤 하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 양친이 모두 별세하고 화선도 어른이 되었지만 그들 세 자매의 생활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일찍 과부가 되어 혼자서 손으로 자식을 키우며 노인이 되어버린 큰딸 화덕, 술집 종업원이 된 화순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화선이 이 세 자매가 함께 모여 부모의 유골을 안치했었던 조선사(朝鮮寺)에 참배하는 장면에서 회상 형식으로

33) 이런 사정은 문○○ 노인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34) 강제인 외, 앞의 책, 110~115쪽을 참조.
 35) 이한창 옮김, 앞의 책.

그들 집안의 과거사가 펼쳐진다.

그들 형제 자매는 이미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이 절에서 부모의 유골을 거두어, 당신들께서 몽매에도 그리워하던 고향의 하늘 아래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모로서 본다면 유명을 달리 한지 각각 23년과 12년 후에야 비로소 고향에 묻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오빠가 형제 자매들의 돈을 모아 부모의 유골을 안고 고향 마을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별다른 연고자가 없는 형편이었기에 어떻게 수소문하여 먼 친척이 있는 낯선 마을(그것도 고향 마을과는 사뭇 거리가 먼)에 겨우 부모의 유골을 묘지 형태로 안치하였다.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된 큰딸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틀림없이 내가 일곱 살까지 자랐던 그 산골짜기 가까이 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산골짜기는 잊혀지지 않아. 제주도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지자 아버지, 어머니는 천수 오빠만 데리고 일본에 왔던 거야. 두 살 짜리인 나를 할머니에게 맡기고서…”(197쪽) 이런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부모님의 유골을 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부모의 묘지를 고국에 안장하기는 하였으나, 형제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겨우 이루어낸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부모의 묘지를 찾아 성묘 한 번 제대로 드릴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때문에 세 자매는 불효 자식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과거에 유골을 안치했던 절을 찾아 부모님의 명복을 빌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자매들은 자신들의 불효를 조금이나마 덜고자 부모님 묘지를 돌보는 먼 친척에게 감사의 사연을 간단히 담아 편지와 함께 소액의 돈을 송금하기로 한다. 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고등학교’를 나온 화선이 형제의 뜻을 담은 편지를 묘지기 부부 앞으로 보내는 대목에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있다. “너무 오랫동안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저희들 대신 부모님의 묘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불효자들이라고 껄뻛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203쪽)라는 편지와 함께 화선은 성묘를 하지 못하는 자기들 대신에 묘지기가 향불 하나, 과일 하나라도 부모님 무덤에 바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형제들로부터 모은 돈을 별도의 외환어음으로 바꾸어 묘지기에게 보냈다. 그것은 환금 수속하는 과정이 오히려 귀찮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 까닭은 해마다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보

내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편지를 보낸 뒤부터 화선은 ‘머잖아 아버지의 묘지를 한번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들뜨기도 하였다.

그런데, 양친의 묘 앞에 머리 조아릴 날을 기다리던 화선의 꿈은, ‘보내주신 그 외환어음 때문에 며칠간이나 조사를 받고 겨우 풀려나는 곤욕을 치렀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돈을 일절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묘지기의 전화 한 통화로 멀어져 버리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선의 앞으로 ‘수취거부’라는 파란 도장이 찍힌 외환어음이 되돌아옴으로써 앞서의 전화의 내용은 또렷한 현실로 밝혀진다. 애초에 큰아들이 양친의 유골을 제주도에 모시자고 했을 때, “일곱 자식들 중에 누가 성묘를 갈 수 있을까... 일곱 형제 모두가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서로 연락하는 일이 없던 때라 부모의 유골이 있는 조선사만이 형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는데...”(202쪽)라는 큰딸의 회상에서 우리는 방향의 꿈은 커녕, 발붙일 곳 없는 제일 동포의 현실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라) 갈곳 없는 떠돌이 - 『방랑전』을 중심으로

떠돌이의 비애는 정착지가 없다는 데에 있다. 터잡고 살 수 없는 자에게 안정된 생활이 있을 리 없다. 1세대 제일 동포 모두가 겪었던 고난이다. 각종 공사장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 다니는 이들에게 자녀의 취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임은 물론, 제대로 된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각종 참여 활동이 정상적으로 보장될 리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뿌리 뽑힌 삶의 전형을 우리는 김문선씨의 일생 그대로를 술회한 『방랑전』³⁶⁾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김문선씨 개인의 생활사를 넘어 제일 한인의 사회사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김씨의 생활사를 그린 이 작품집의 성격을 두고 일본의 사회학자인 스스키 지로는 그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김씨는 생모의 얼굴을 모른다. 1929년 세 살 때 고모 내외와 함께 도일했다. 모친 대신에 김씨를 헌신적으로 키운 고모는 이윽고 자살해서 불행한 생애를 마감했다. 김씨가 이 일을 안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한편, 김씨

36) 김문선 『放浪傳・昭和史の中の在日』(彩流社, 1991)

는 자기보다 조금 늦게 도일한 부친과는 함께 산적도 있지만, 김씨의 가출 이후로 지금도 그 소식이 불명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소학교 시절에 30 회 이상 전학하였으며, 가출하여 남의 집에서 일한 적도 있다. 그 후 주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각지를 전전했다. 그 일의 종류는 다양하여 헤아릴 수 없다.(중략) 이 책은 단순히 이러한 변천을 거듭한 일개인의 걸음을 재미있게 이야기한다든지, 어깨를 으쓱하며 어필한다든지 그러한 영역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김씨의 인간상을 축으로 하는 사회사이다.(중략)

지금 김씨는 지문날인 거부와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의무의 폐지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싸움을 통해 강대한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표현을 억제한 다른 곳과는 어조가 조금 다르다. 김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재일'로서의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 김씨가 싸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앞에 가로 놓여 있다. 그 해결에는 우리들 모두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본서를 통해 새삼스럽게 통감했다.³⁷⁾

김씨의 고국에 대한 추억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씹던 일, 제삿날에 모여든 집안 어른들의 근엄하고도 위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술값을 장만하느라 집안의 쌀을 몰래 퍼내 가려는 아버지와 이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고모와의 실랑이 장면 등등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가출해버렸으므로 김씨는 생모의 얼굴을 모른다. 김씨는 3세 때인 1928년에 고모를 따라 일본의 오사카로 건너와, 반년 정도 늦게 도일한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을 떠돌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닐 정도의 어린 나이에 김씨는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을 전전하는가 하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피해 공사장에서 밥장사를 하는 고모부 내외에 얹혀 살기도 한다. 이런 더부살이도 오래 가지 못했으니, 고모 내외의 파탄으로 김씨는 다시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걸핏하면 얻어맞는 고통의 나날을 겪게 된다.

이런 아픔을 피해 김씨는 13세에 가출을 감행함으로써 혼자만의 고독한 떠돌이 신세가 된다. 따라서 그의 학교 생활은 13세에 끝나버린 셈이다. 그것도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결석일수가 출석한 날보다 더 많을 정도였으니 그의 학력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식당, 여관, 소개소, 목욕탕의 심부름꾼, 녀마주이 등으로 연명하면서 김씨는 갖은 고난을 겪는다. 이런 가출 생활로 그는 일

37) 김문선, 앞의 책, 1~4쪽.

본인의 사회에서 6년 여 세월을 떠돌다가 다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공사장 부근의 판자촌으로 되돌아온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일본의 마츠리, 서커스, 장례식장 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주린 배를 채우는 요령을 익히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의 생태를 그 나름으로 읽어내기도 한다. 일본에 떠도는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이 향수를 달래는 길은 술, 노름, 그리고 가설 극장에서 펼쳐는 일본의 서커스를 관전하는 일 등이 전부였다. 이 같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김씨는 일본 사회의 이방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제일 동포의 애환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태평양전쟁으로 징용의 바람이 불자 김씨는 쓰키지마와 토야마의 조선소를 전전하며 징용을 피하는가 하면, 다이쇼의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왼쪽 손목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는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한 때 자살의 유혹에 시달리기도 한다. 불구의 좌절을 어느 정도 극복한 김씨에게도 조국의 광복은 다가왔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었으므로 귀국을 미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인 피폭자의 죽음을 목격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친 한 청년이 이름도 모르는 불귀의 시체가 되어 산 속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 일본의 국가 폭력에 비분강개한다.³⁸⁾ 일본의 패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씨는 광산에서 나와서 와카야마로 흘러들어가 길거리 도박단을 운영하여 거금을 만지게 되면서, 한때 마약 중독자가 되어 정신병원과 수용소를 드나드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기도 한다.

수용소를 탈출한 후에 갈곳을 잃은 김씨는 카와사키에 가서 녀마주이 노릇을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 편한 생활을 누리기도 한다. 다시 일용 노동시장이 성행하는 산야 지방으로 흘러든 김씨는 일본인 노동자가 자기한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음은 물론 파렴치한 행동과 차별적인 언행을 일삼자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취중에 휘두른 칼에 문제의 일본인이 비명횡사하는 사고를 저지른다. 설상가상으로 취조 과정에서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확정되면서 그는 6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김씨는 비로소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된다. 그 직접적

38) 조선인 피폭자의 체험은 『백만인의 신세타령』에 여러 편 구술 소개되고 있다.

계기가 바로 외국인 강제송환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이다. 이 법은 자신의 앞날과도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탈취하여 갖은 착취는 물론 징용과 징병으로 피를 빨아먹고는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인은 외국인이니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강제로 내쫓겠다’는 협박이므로 이는 너무나 불합리하고도 파렴치한 처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복역을 마친 김씨는 조선인 강제송환 조항에 분노를 표시하고 지문날인 거부 선언문을 작성하여 일본의 법무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발송하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비장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나는 60여 년을, 전쟁 전에는 일본인으로서 일본화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방적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현재의 나는 한국어도 모르고 습관도 모릅니다. 그런 나로서 형벌을 수반하는 외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개목걸이 감찰증(외국인등록증)에 지문날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일본국가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보지 않는 것입니까! 잠시라도 외출할 때의 상시 휴대의무 때문에 나는 일본국가에 대하여 원망과 한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정치, 사회감정은 우리에게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일본정부의 훌륭한 사람들, 총체적인 일본인들이 말하는 한일친선우호는 말뿐인 것입니까! 지문날인, 상시휴대 의무의 무거운 십자가를 이 법률을 발안한 귀축(鬼畜)과 같은 관리들, 편견 차별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에게 씹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휴대하지 않은 죄목의 6회 투옥경험으로부터 또 외국인등록증에 담겨있는 검은 배설성(排泄性)으로부터 이 법률의 단호한 철폐를 주장합니다. 인권, 인간성을 무시한, 차별의 근원을 이루는 부당하고 불법인 악법을 일본도 참가하고 있는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으로 재빨리 철폐하는 참된 국제친선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외평등의 국제법을 엄격히 이행·준수하여 국제신의를 지킬 것을 요망합니다.

그 때문에 항의의 의사표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1985년 6월 27일 김문선³⁹⁾

이어서 김씨는 일본의 수상과 외무장관 그리고 법무장관 등에게 3번의 혈서로써 지문날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수차의 단식농성으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공표하고 한국의 대통령과 야당 총재에게도 글을 보내어 제일 동포

39) 위의 책, 228~229쪽.

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김씨의 이러한 운동은 그 스스로 외국인 등록증 갱신에 필요한 사진 두 장을 첨부하지 않은 채 수속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행동으로 입증되기에 이른다. 김씨의 이와 같은 파란만장한 생활사이야기는 일본인 학자들의 주선으로 그의 구술을 녹음 채록하고, 미진한 뒷부분을 직접 대필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참으로 나라 잃은 백성의 갈곳 없는 떠돌이적 삶의 전형이라 하겠다.

김씨의 이와 같은 진술이 지닌 서사문학적 생명력은 일차적으로 체험 그 자체의 특이성에 있다. 뿐만 아니라 떠돌이적 삶의 고난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맞서나가는 불굴의 의지와 함께, 특이한 체험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시선이 좁은 공간에서 치밀하게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나감으로써 김씨의 마음이 자연스레 우리의 가슴에 저머드는 방식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그의 『방랑전』은 일본의 구석구석을 돌보 기처럼 뒤지다가, 중국에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그 절정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분노의 대목에서 우리는 김씨와 함께 제일한인의 사무친 원한과 이를 극복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하게 된다. 말하자면, 서사적 진실성에 터잡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마) 민족의식과 통일의 염원 -<나의 이카이노(わたしの猪飼野)>를 중심으로

인간이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정체성을 모색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일한인의 경우, 자기정체성이란 쉽사리 마련되지 않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한때 식민지 국민이면서도 일본이라는 식민지 지배국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그 속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에다, 부당한 대우로 삶을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복 후에는 조국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 현실 또한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의 소유자들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제일한인의 경우에, 삶의 현실과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일본에서의 생존과 함께, 분단된 조국

의 통일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양면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의 ‘재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재일 한인 작가들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해방 후 재일 1세대라 할 수 있는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등의 작품에서부터 최근의 김창생, 원수일, 이양지 등에 이르기까지 민족이라는 화두는 ‘재일’이라는 실존적 조건을 규정지를 뿐만 아니라, 분단 조국의 통일을 향한 민족적 역량의 결집이 바로 식민지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기도 한다. 제 1세대 작가들이 대체로 갈등과 대립 현장으로서의 조국을 부각시킴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김창생, 원수일 등의 2세대 작가들은 일본이라는 시공간에서의 일상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을 통해 민족 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상을 보인다. 김창생의 표현처럼 ‘11월의 어머니의 죽음은 나와 딸에게 이어져, 학교를 다니며 배운 세대가 가야할 지금부터의 삶’⁴⁰⁾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 해방 이전에 일본으로 와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1세대들과는 달리 해방을 전후하여 태어난 2세 이후의 세대들은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사춘기를 보내며, 추상적 관념어들을 일본어를 통해서 습득한 사람들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 1세대보다 ‘일본’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훨씬 더 많이 구애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공간이, 재일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데, 오사카시의 ‘이카이노’는 그 대표적인 공간이라 하겠다.

재일 2세대인 김창생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카이노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자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나’에게 있어서 이카이노는 언제나 떠나고 싶은 곳, ‘이카이노만 아니면 어느 곳’(<日本のなかの故郷>, 61쪽)이라도 좋을 만큼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 후 약 삼 년 정도를 히가시 오사카(東大阪)에서 산 것을 제외하면 ‘나’는 그곳을 벗어나 살았

40) 金蒼生, <十一月の死>,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國と異國』(風媒司, 1985), 41쪽. 앞으로 본문 속에 인용하는 경우는 () 속에 면수만 밝히고 본문과 분리하여 인용할 때는 각주로 처리한다.

던 적이 별로 없다. 그만큼 애증이 뒤섞인 공간이 바로 이카이노인 것이다.

어릴 적, '나'와 그 가족들에게 '조선'이나 '민족'은 부끄러운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창생'이라는 이름을 일본어 식으로 '소우세이(ソウセイ)'라 읽었을 때, '돼지'의 이름(<豚のなまえ>, 8쪽)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식을 지녔을 때, 당당하게 조선식 이름을 쓰는 아이는 '나'와 같은 동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조선적인 것을 한사코 거부한다.

어머니는 이미 삼베 치마저고리로 같이 입고 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오빠들은 굴건을 쓰고 허리에는 새끼줄을 맨 채 준비하고 있었다. 언니도 어젯밤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다. 나에게도 그 옷을 입히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거부했다. 학생복이면 되지, 선생님도 친구들도 오는데 학생복이면 되지 않겠느냐며 마지막에는 애원을 했다. 오빠는 불쾌한 얼굴을 하며, '이런 때에는 좀 고분고분 하라'며 꾸중을 했다. 임종 때에는 한 방울도 나지 않았던 눈물이 넘쳐흘렀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선옷을 입어야 한다니.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조선 치마저고리를 입고 장례식에 나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슬프고, 더 참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입었다. 길 저쪽 편에서 우리 집을 향해 오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한 나는 집을 뛰쳐나간 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⁴¹⁾

어느날 친구네 집에 놀러갔었는데, '너는 도저히 조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친구 어머니의 말을 최대의 칭찬으로 받아들이며 우쭐했던 '나'에게 조선은 그야말로 벗어버리고 싶은 굴레일 뿐이었다. '나'에게 조선은 '가련한 역사와 그 후예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에 한숨짓는 무지몽매'(<日本の冬>, 21쪽)한 모습으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 상복으로 조선옷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났고, 그 모습을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들킬까 두려워 집을 뛰쳐 나가버렸던 것이다. 그러던 '나'가 민족에 눈을 뜬 것은 의무교육인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간의 사회생활을 거쳐 '민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그곳에서 나는 일본인 학교에서 배운 부정적인 조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교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일본인인 나 자신과 조선인을 지향하는 나 자신 사이의 간극'(<日本の冬>, 21쪽)

41) <甲殼>, 김창생, 앞의 책, 18~19쪽.

에서 고민하다, 홋카이도 여행과 몇 년 뒤의 稚内여행을 통해서, 엄격하고 무언가 나오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족학교의 여교사들이 사실은 자신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조선어를 배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야간학교의 강사가 되어 조선어, 조선역사, 조선노래 등을 가르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식날 서구식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결혼식 정도는 민족의상을 입으면 어떠냐’⁴²⁾(〈私が殺された日〉, 129쪽)고 비난할 정도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의식의 성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분단된 조국으로 인해 빚어지는 갖가지 갈등이 가로놓여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카이노는 ‘모든 층의 생각이 뒤섞여 분출되는 지역’(〈政治の街—南北分斷のはざままで〉, 72쪽)이다. 그곳에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와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의 지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조직과 이념을 떠나 서로 돕고 사는 이들도, 정치 문제만 개입되면 날카롭게 반목하고 대립한다. 『협정영주권』 신청을 두고 1970년 1월 16일에 일어난 민단과 조총련계의 대립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 예를 우리는, 대한민국에 유학했던 권말자 씨가 중앙정보부에 끌려 가 10여일 간의 폭행과 고문을 견디다 못해 발설한 친구들의 이름이 ‘모국 유학생 스파이 사건’으로 확대 발표된 사건의 서술에서 찾을 수 있

42) 이런 모습은 자신의 딸아이에게도 조선어를 사용하게끔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인용에서는 딸아이가 지닌 조선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재일 동포 3세에 해당하는 3세의 딸은 내가 더듬거리면서도 일상회화에 조선어를 섞어서 말하도록 노력한 때문인지 간단한 단어는 아직 잘 돌아가지 않는 혀이지만 조선어를 사용한다. 단지 다니고 있는 보육원이 일본 공립보육원이기 때문에 딸의 어린 머리로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때 딸은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적이 있다. 딸이 기억해 온 것은 「いただきます」인데 나는 그 뒤에 「잘먹겠습니다。」라고 따라 하여 딸이 따라 하게 했지만, 딸은 그것을 거부했다. 「보육원에서는 いただきます라고 하지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딸은 짜증을 내며 저녁식사시간에도 밥을 먹으려하지 않고 장롱 옆에서 움츠리고 있었다. 딸의 어린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었더니 그때부터는 내가 조선어를 사용하면 조금씩 따라하게 되었다.”〈日本のなかの「故郷」〉, 김창생, 앞의 책, 63~64쪽.

다. 뒷날, 권말자 씨는 수기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지만, 민단체 사람들에게 그녀는 매춘부로 매도당하는 것이다.

오사카에서 2천명 가까운 참가자들의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린 후 그녀는 친구와 조선시장을 행진했다. 노점의 아주머니들은 「권말자 아니여?」라며 달려와 한방약 등을 전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었던 것이다.

역시 오사카에서 7·4공동성명 4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때이다. 내빈 자격으로 출석한 그녀에게 조직에 의해 동원된 민단·부인부의 부원들은 그녀를 매도했다. 그녀 정도의 딸을 두었을 듯한 아주머니들이 그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나’는 전을했다. 그녀의 기사가 신문에 났을 때, 그 기사 옆에 한국 영사관 소속 누군가의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수기는 전혀 사실무근 일뿐만 아니라, 조총련의 조직망에 의해 이용당한 사람이다’라고 쓴 것으로 추측해 볼 때, 이는 조직을 동원해 집회를 파괴하려 한 책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녀가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것을 굳이 발표한 용기야말로 대단하다. 그러므로 매춘부로 매도당하는 그녀를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한사람 한사람의 아주머니들은 각각의 가정을 가지고 있고, 함께 제일이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조직의 이해관계만이 선행되고 인간의 진실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놀랐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나에게 남북분단의 비극을 지금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충격의 사건이었다.⁴³⁾

그러니까 이카이노 역시 분단의 현장이다. 분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의 일인 것만이 아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판이한 것은 물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한다. 왜 어렸을 적, 영화관에서 보았던 ‘춘향전’ 일 것이라고 짐작되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충일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인가? 왜 ‘무대와 화면’을 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내가 조선인’(<いきづくもの>, 149쪽)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눈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3세, 4세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을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만큼 민족의 통일은 상징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제일 한인들에게 사실 이카이노야말로 상징적인 공간이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반목하지만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때때로 도움을 주면서 한 민족으로

43) <政治の街—南北分斷のはざままで>, 김창생, 앞의 책, 76~77쪽.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통일은 이카이노로부터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남도 북도 모두 마음은 하나지’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또 ‘이곳 이카이노로부터 조선통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되지요. 옆집이 민단, 맞은편 집은 조총련, 옆집 아주머니는 장사를 하며 한국에 왔다갔다 한다. 맞은편 집의 아주머니는 자기도 가고 싶지만 꼭 참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면 이웃 간 교류를 할 수 없다. 정말로 이 이쿠노에서, 이카이노에서 조선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 략-

‘조선통일은 이카이노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로의 이 어머니의 말을 가슴 밑바닥에서 반복하면서 냄새를 머금은 1월의 바람에 뺨이 언 채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나와 딸이 있다.⁴⁴⁾

어린 딸과 함께 강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겹쳐져 있다. 어린 딸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강이란 1920년대에 조선인을 끌고 와 치수공사를 했던 히라노강(平野川)이다. 그러므로 이 강에는 이 땅에 끌려왔던 부모들의 땀과 한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부모에게서 벗어나 조선인임을 숨기며 살고 싶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린 딸은 ‘いただきます’ 대신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민수’(<日本のなかの「故郷」>, pp.63~64)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모녀가 바라보고 있는 강은 단순한 현실의 강이 아니라 상징의 강이다.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이카이노 한 복판을 끊임없이 흘러가는 상징의 강인 것이다.

V. 마무리

제일 동포,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 제일 코리안, 제일 한인 등등 같은 대

44) <朝鮮統一は猪飼野から>, 앞의 책, 83~84쪽.

상을 두고 이렇게 여러 지칭들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바로 그들의 역사적 이념적 다층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제일 한인의 생활사 이야기 또한 그 지칭에 못지 않게 복합적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대와 2세대의 거리, 민족을 내세우며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80·90년대에 부쩍 많이 건너간 소위 뉴카머(new comer), 일본화된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의 3·4세대 등 그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성격 그대로의 생활사 이야기이다.

문헌에 구술 채록된 생활사이 이야기는 대체로 식민 통치에 의해 빼앗기고 내쫓긴 사람들의 회고적인 분노와 하소연이 주류를 이룬다. 『백만인의 신세타령』이라는 이름의 자료와 『방랑전』 등이 그러하다. 한편, 『국경을 넘은 사람들』, 『제일 제주도 출신자의 생활과정』 등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먹을 것이 있는 낯선 땅을 찾아, 강인한 생활력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는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자 모두 침략자의 만행으로 빼앗긴 사람들에게 의해 생겨난 ‘제일’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면담을 통해 채록한 제보자들의 경우도 그 파란만장한 지난날의 고통이야 모두 한가지로 일치되었지만 오늘의 심정이나 각오는 비교적 화해와 공존 지향적인 것이었다. 다만 한결같은 염려는 우리 민족의 말, 역사와 문화가 자신의 후손들에게서 영원히 잊혀지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와 동시에 그 계승과 보전을 회구하는 마음들이었다.

생활사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독일의 동기와 과정, 생업과 주거, 조국의 분단 현실과 대응, 차별과 저항, 취학과 교육, 망향 의식, 장례와 제사, 혼인과 예식, 국적 문제 등으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관심사들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서사문학 작품들에 내재된 의미는 한결 격조 높은 차원으로 읽힐 수 있는 경우가 상당한 듯하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해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짐하면서, 돌아나는 속살을 소중히 가꾸어내는 경지를 지향한다고 할까. 이런 관점에서 주로 제일 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서사적 형상화의 양상을 다섯으로 나누고 그 의미를 추론해보았다.

첫째, ‘일본 속에 심은 한인 마을’이라는 테마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원수일의 <회락원>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이 공간은 오사카의 이카이노에 있다.

‘회락원’이라는 호르몬(곰창) 구이 가게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는 조국의 비극적이고도 비정한 정치 현실을 저 나름의 논리로 해석하면서 그 한가운데에 서고자 하는 논쟁이 있는가 하면, 취업의 어려움으로 좌절당하는 아픔, 일본인의 우월 의식을 짓누르려다 싸움판을 벌이는 청년의 울분, 일본 여자와의 결혼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형제간의 다툼 등의 사건을 목적 조정하면서 이들을 화해의 길로 이끄는 여주인공 승옥은 어릴 적 고향 마을의 자애로운 어머니상 바로 그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회락원>은 어머니의 손맛 같은 마음으로 제일 한인 군상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와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대간의 갈등과 거리 조정’이라는 의미를 박중호의 <올타리 밖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일본인과 제일 동포 자녀의 결혼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세대간의 갈등을 가족사의 차원에서 밀도 짙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의 결혼 문제는 개인적 가정의 문제를 넘어 제일 한인 모두에게 닥쳐오고 있는 민족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민족의 문화적 혈연적 정체성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일본 땅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서로를 받아들여 함께 섞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고뇌 짙은 문제인 것이다.

셋째, 김창생의 <세 자매>는 망향의 한을 가슴에 안고 이국에서 숨진 부모의 제삿날에 만난 세 자매들의 가난하지만 인정 있게 사는 모습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잔잔한 감동의 필치로 그리고 있다. 생전의 부모가 그다지도 그리워 하던 고향이었기에, 장년기에 이른 자식들이 푼푼이 돈을 모아 사후 10여 년 이상이나 지난 부모의 유골을 안고 고향을 찾아 이리 저리 수소문 끝에 고향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다 묘를 마련하고 돌아왔지만 막상 어느 자식 하나 성묘를 다녀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 아픈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이전에 유골을 안치했던 일본의 절을 찾아 불효를 속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과거 회상과 현재의 어려운 일상, 그리고 이들을 반기는 이 없는 고향의 현실이 교차되는 아픔으로 그려진다. 이들이 송금한 소액의 향족대 때문에 묘지기가 당한 낭패를 알게된 세 자매의 심정은, 문자 그대로 ‘망향의 소망이 고향 상실의 현실’로 깨어나는 순간이다.

넷째, 김문선의 『방랑전』과 정승박의 『쫓기는 나날들』⁴⁵⁾에서 우리는 ‘갈곳 없는 떠돌이’를 만나게 된다. 터잡고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안정된 생활이 있을 리 없다. 김문선씨의 떠돌이적 삶의 모습은 제목 그대로 그의 한평생임은 물론 그 공간적 영역 또한 일본의 구석구석에 아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이야기의 목소리 또한 분노로 얼룩지고 있는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함께 뭔가 모를 후련함이 있다. 이에 비해, 정승박의 『쫓기는 나날들』은 우리에게 떠돌이의 한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분노보다는 서글픈 듯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작품이다.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까닭 없이 강제 퇴학을 당하고, 징용을 피해 숨어든 깊은 산골짜기의 공사장에서 마저 강제로 쫓겨나는 주인공에게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갈곳 몰라 헤매는 떠돌이의 한 많은 아픔을 읽게 된다.

다섯째, 김창생의 자전적 산문집 『나의 이카이노』에는 민족의식과 통일의 염원이 군데군데 배어 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거리>와 <조국통일은 이카이노로부터>라는 글은 이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어린 딸과 함께 이카이노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주인공이자 작자의 분신임)의 모습에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겹쳐져 있다. 어린 딸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강이란 1920년대에 조선인을 동원하여 치수공사를 했던 바로 그 히라노강(平野川)이다. 그러므로 이 강에는 일본 땅에 끌려왔던 부모들의 땀과 한이 서려 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에게서 벗어나 조선인임을 숨기며 살고자 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당당히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어린 딸도 ‘이타다키마스(いただきます)’ 대신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민수’라는 이름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모녀가 바라보고 있는 강은 단순한 현실의 강이 아니라 상징의 강이다. 과거의 배고픔, 차별의 아픔, 동족간의 갈등을 씻어내고 이제는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서는 제일 한인들의 모든 염원을 담아 끊임없이 띄워보내는 마음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강인 것이다.

앞으로, 제일 한인의 ‘생활사이야기와 서사문학’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에서 필자는 원망과 분노, 자조와 한탄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잇어 가는 후손

45) 이한창 옮김, 앞의 책.

들에 대한 우려 등의 목소리 못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방조하고 빌붙은 과거가 있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응징과 다짐의 목소리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송○○·김○○·박○○·이○○님들의 인터뷰 내용과 <울다리 밖으로>·<이카이노 모노가타리>·<나의 이카이노> 등에서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폭과 깊이를 두루 갖추고 보다 당당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작품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록, 필자가 이들을 찾아 읽어낼 수 있는 한계를 망각하고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말이다.

주제어: 제일 한인, 생활사이야기, 서사문학적 형상, 서사적 양상

참고문헌

1. 국내논저

- 강덕상, 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제일동포』, 서울대 출판부, 1999.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 도서출판 하늘재, 2001.
김용운·진순신,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문학사상사, 2000.
손승철 외,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유숙자, 『제일한국인문학연구』, 월인, 2000.
이광규, 『제외 한인의 인류학적 연구』, 집문당, 1997.
이광규, 『在日韓國人』, 一朝閣, 1983.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일본-』, 통일원, 1996.
정백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2000.
한일관계사학회,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1998.
한일역사교육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000.
홍기삼 외, 『제일한국인 문학』, 솔, 2001.
윤건차 외, 『제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2. 국외논저

- 「はたらく在日朝鮮人」, 『ほるもん文化』2호, 新幹社, 1991.
- 「朝鮮人 強制連行」, 『青丘文化』創刊號, 1991. 秋・冬
- 姜在彦 代表(戰後補償問題 研究所), 『在日韓國・朝鮮人の 戰後補償』, 明石書房, 1981.
- 姜在彦, 『在日からの 視座』, 新幹社, 1996.
- 姜在彦・金東勳, 『在日韓國・朝鮮人-歴史と展望』, 労働經濟社, 1992.
- 吉岡増雄 편, 『在日朝鮮人の生活と人權』, 社會評論社, 1980.
- 金達壽 外 『日本の中の朝鮮』, 太平出版社, 1974.
- 金達壽 外, 『日韓理解への道』, 中公文庫, 1994.
- 金文善, 『放浪傳』, 彩流社, 1991.
- 金英達, 『在日朝鮮人の歸化』, 1980.
- 金容權, 李宗良 편, 『在日韓國・朝鮮人』, 三一書房, 1990.
- 金容海, 『本名は民族の誇り』, 碧川書房, 1996.
- 金蒼生, 『わたしの猪飼野』, 風媒社, 1985.
- 内山一雄, 『在日朝鮮人と教育』, 三一書房, 1984.
- 大阪 朝鮮人人權守護會, 『在日朝鮮人の在留權』, 1978.
- 朴容福 外 二人, 『ユリマン マイノリティ研究』 1・2・3・4호, 新幹社, 1998~2000.
- 朴一, 『<在日>という 生き方』, 講談社, 1999.
- 朴春日, 『増補 近代日本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85.
- 兵庫朝鮮關係研究會, 『在日朝鮮人 90年の軌跡』, 神戸學生・青年センター出版, 1993.
- 杉原 達, 『越境する民』, 新幹社, 1998.
- 徐龍達 編, 『韓國・朝鮮人の 現状と將來』, 社會評論社, 1987.
- 金正根 外編, 『在日韓國・朝鮮人の健康・生活・意識』, 明石書房, 1995.
- 新奈川新聞 社會部, 『日本の中の外國人』, 新奈川新聞社, 昭和 60年.
- 若槻泰雄, 『韓國・朝鮮と日本人』, 原書房, 1989.
- 양석일 외 지음, 이한창 역, 『재일동포작가단편선』, 도서출판 소화, 1996.

- 오자와 유사꾸 지, 이충호 역, 『제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혜안, 1999.
- 元秀一, 『猪飼野物語』, 草風館, 1987.
- 尹健次, 『在日を考える』, 平凡社, 2001.
- 李靑若, 『在日韓國人三世の胸のらち』, 草思社, 1997.
- 高鮮徽, 『在日 濟州道出身者の生活過程』, 新幹社, 1996.
- 前田憲二 外, 『百萬人の身世打令』, 東方出版, 1999.
- 田中 明, 「物語 韓國人」, 『文藝春秋』, 平成13년.
- 鄭大均, 『在日朝鮮人の 終焉』, 文春新書, 平成 13년.
- 佐藤文明, 『在日外國人讀本』, 綠月出版, 1998.
- 佐藤勝巳, 『在日韓國・朝鮮人に問う』, 亞紀書房, 1992.

<Abstract>

The stories of the Korean-Japanese's daily
experiences and the Narratives.

Lee, Heon-Hong

I discussed the stories of the Korean-Japanese's daily experienc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otivation and process of the immigration into Japan, living and housing, mother country's division and coping with it, racism and resistance, entering school and education, the consciousness of forgetting hometown, funeral and memorial service, marriage and rite, and the problem of nationality etc. A lot of meanings implied in the narratives based on the various interests like these can be read on the high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spects of narrative forms written by the 2nd generation writers of the Korean-Japanese are divided into five ones.

First, *Heerakwon* by Won Su-il, of which the theme is Korea Town rooted in Japan, focuses on the wisdom and the role of living together feeling the wound of Korean-Japanese with the motherlike mind.

Second, I discussed the meaning of "generation gap and the settlement of its distance" on *Out of the Fence* by Park Jung-ho. In this work the conflicts around the marriage may be thought a serious problem of the Korean people beyond a family's matter.

Third, *Three Sisters* of Kim Chang-saeng describes the feelings of the sisters who met on the memorial service day for their parents who died in foreign land cherishing the nostalgia for the hometown. The thematic meaning of the work is the awakening of the moment that the wish of missing hometown is recognized as the loss of hometown and the pain caused by it.

Fourth, in *Wanderings* of Kim Moon-sun we meet a vagabond who has no home. There is no safety life for the man who cannot live in the home. The wandering life of Kim Moon-sun is his whole life as we can see in the title itself. At the same time the space extends to everywhere in Japan.

Fifth, in *My Icaino*, which is biographical essays of Kim Chang-saeng,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ity and the wish for the unity of Korea are penetrated here and there. Especially "the street of politics" and "the unity of mother country is from Icaino" describe them summarily.

From the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the stories of everyday experiences of the Korean-Japanese and the narratives,' I am looking forward to find not only complaint and resentment, self-scorn and regret, and the voice worrying about the descendants who have been oblivious of our language and culture, but also the voices of our own punishment and resolution for the past we did not cope with.

Key words: Korean-Japanese, story of life-history, figure of narratives, aspects of narrative forms.